

## 존 파이퍼: 너무 쉽게 우리를 얹어매는 죄들과 못된 성질 고치기

히12:1-2

요즘 우리는 존 파이퍼: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파이퍼라는 영적 투사/교사를 통해 바울을 배우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배운다.

지금부터 5주 전 5월 8일, 나를 얹어매는 죄들을 억제하는 비결을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다. 강해가 내게도 유익했고 내 아내에게도 유익했다. 그 날 강해를 하면서 이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1달쯤 뒤에 조금 더 보강해서 설교를 하겠다고 하였다. 왜? 나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우리를 얹어매는 죄와 못된 성질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어떤 목사의 설교. 그 다음 두 주 내내 같은 설교, 왜, 여러분과 내가 듣기만 하고 고치지 않으니 반복한다. < >

### 파이퍼의 휴가

그는 만 74세, 1980년부터 2013년까지 33년 베들레헴 침례교회 목회

64세였을 때 그는 목회 사역을 멈추고 8개월 동안 휴가를 얻었다.

이유: 뒤로 물러나서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목회 사역의 압력이 나를 눈멀게 하여 내 가족과의 관계, 결혼 생활, 개인의 거룩한 삶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 우리에게 결혼 생활의 위기는 없었다. 목회 사역을 그만두어야 할 정도의 악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가족 관계와 결혼 생활 그리고 사역의 압력으로 인해 나는 설교, 직원들 지도, 글쓰기, 미디어 사역 등을 잠정적으로 그만두게 되었다.

8개월 동안 나와 내 아내는 다른 교회에 출석해서 회중의 일부가 되었다. 내 목표 중 하나는 내가 목사나 인도자가 아니라 그냥 성도가 되어 공예배에 참석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목사나 인도자가 되지 않고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 아마도 나와 아내도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다. 지난 5년간 성경 교정, 교회 건축... 애국 운동 등 인생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아 부은 시기,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오게 되었다. 주님께 감사,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

### 이 기간에 나를 얹어매는 죄에 집중하였다

나는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죄 즉 나를 얹어매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너무 쉽게 나를 얹어매는 죄

왜 부부 사이의 화평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도 바울의 히브리서, 나는 개인적으로 로마서보다 더 잘 읽는다. 심히 논리적인 책, 6-10장의 단번 속죄, 전율이 생긴다. 그리고 11장 믿음 장, 구약 시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12장,

1-2: 바울의 위대한 권면, 많은 증인들이 경기장의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너무 쉽게 우리를 얹어매는 죄를 떨쳐버리자. 그리고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여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승리자로 앉아 계신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5-6). 7-8절 귀중한 말씀

쉽게 우리를 얹어매는 죄를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1.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죄, 멀리 있는 죄가 아니다.

2. 쉽게 우리를 덮치는 죄, 3. 우리의 행로를 가로막는 죄, 4. 특히 성화를 망치는 죄,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양심에 고통을 주는 죄

5. 모든 무거운 것, 100미터 경주, 거추장스러운 것 다 버리고 신방, 양말, 반바지, 런닝셔츠

6. 사람마다 다 다르다. 7. 자기와 가족들이 가장 잘 아는 죄

파이퍼: 이 기간에 나는 바울을 통해 나의 참 모습을 가장 깊게 관찰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통해 나를 얹어매는 죄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 죄들의 목록

파이퍼의 경우 그를 얹어매는 죄는 그의 타고난 성격, 성품으로 인한 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그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이기심, 분노, 자기 연민, 쉽게 남 탓하는 것, 일이 안 되면 엉뚱하게 행동하는 것(혹은 축 처지는 것), 파이프 상당히 열정적, 충동적, 감정적, 거의 나하고 똑 같다.

물론 내가 성적인 죄 즉 안목의 정욕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감추려는가 보다 의심하는 분들도 있다.

(\*) 성적 유혹/정욕으로 인한 죄를 극복하는 것은 이 모든 죄를 극복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다.

성적 유혹 혹은 정욕의 극복은 목사를 포함해서 특히 모든 크리스천 남성들에게 꼭 필요하다.

타락하는 목사의 다수가 돈과 여자 문제

파이퍼의 간증: 내 아내는 나를 향한 성적인 유혹이 이런 죄들보다 우리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망쳐놓을 정도로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서치라이트를 사용해서 나는 위의 5가지 죄를 발견하였고 그것들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나는 나의 이기심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 이기심이란 무엇인가?

이기심은 한 마디로 교만과 같으며 바울은 그것을 내재하는 죄라고 롬7:23에 표현하였다.

이 죄는 구원받은 성도인 내 안에도 버젓이 내재하고 있다.

내가 모든 죄를 지을 때 맨 밑바닥에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

내 이기심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방법으로 반사되어 나타났다.

1. 나는 섬김을 받기를 기대한다(원한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빛을 지고 있다고 느낀다.
3. 나는 좋은 소리를(칭찬) 듣기 원한다.
4.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기대한다(원한다).
5. 나는 누군가가 무언가를 지적하면 부정적으로 반응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내 이기심의 이런 특성들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드러나 있다.

이런 것들은 나의 부패된 본성에서 나온다. 내가 그리하려고 결심해서가 아니라

나는 의무감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죄들은 순간순간 나온다.

이것들은 원초적인 나의 죄성을 반사해서 보여 준다.

### 이기심의 특별한 효과들

이기심이 발동되면 어떤 일이 내게 생기는가?

이기심으로 인한 4가지 효과

1. 분노: 내 앞에서 누가 나를 막을 때 큰 분노가 치솟는다. 나는 즉각적으로 말로 내쫓는다.
2. 자기 연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상처받은 것, 부당하게 대우받은 것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내게 와서는 동정심을 표해 주기 바라는 것
3. 쉽게 남을 비난하는 것: 내가 그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조하여 목소리를 내고 같이 비난하는 것
4. 무뚝뚝하게 행동하는 것: 푹 가라앉아서 처지는 것, 소망을 잃는 것, 무 반응하는 것 등

이런 이기심의 죄가 발동되면

1. 내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 내 아내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사랑이나 돌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부드러운 감정이 사라진다. 소망이 말라버린다.
3. 사역에서의 역경을 이기고 나갈 힘이 사라진다.

가장 나쁜 것은 바울의 표현대로 이런 죄들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견지 아니하는 것이다(갈2:14).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빌1:27).

바울은 나의 불일치를 보여 준다.

이렇게 나 자신을 평가하는 기간에 바울은 주님께서 내 죄들을 십자가에서 제거하신 것과 그분의 피 값으로 구속받은 내가 내 죄들을 정복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만 하는지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다시 말해 그는 내가 이런 죄들과 관련해서 무의식 중에 발전시킨 수동성의 패턴을 여지없이 부수어 버렸다.

바울은 내 안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보여 주었다. 설명 필요!!

사실 나는 성적 유혹을 죽여야 함을 깨닫고 의식적인 노력을 인식하며 그 일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런데 성적인 죄 말고 이런 분야의 죄들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나는 성적 정욕은 즉시 의식적으로 공격해서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 때문이다(마5:29). 나도 이 점에서 마찬가지.

그런데 나를 얽어매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도 내가 같은 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런 죄들은 내 노력 없이 성령님의 무의식적인 일에 의해 사라져야만 하였다.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죄들은 용서받은 죄들밖에 없다.**

우리의 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제거되었다(골2:14).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죄들의 punishment에서 벗어남, 이제 남은 것은 성령님에 힘입어 우리를 얽어매는 그 죄들의 파위를 부수는 것이다. 그런데 8달 동안 내게 깨달은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들을 제거하신 것과 내가 내 죄들을 정복하는 것 사이의 연결 고리는 성화를 위한 의지적인 노력이다.

분명히 내게 남아 있는 유일한 노력은 성령님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는 나의 의식적인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수동성을 유지하는 것 즉 “주님이 알아서 다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바울이 가르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 과거를 살펴보았다. 왜 내가 수동적이 되었는지 보려고.

#### 바울의 보여 준 세 가지 그림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들을 제거하고 내가 노력하도록 나를 인도하는 것을 세 개의 그림으로 보여 준다.

1.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죄를 향해 죽었다(롬6:5).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죽음으로 몰아넣어야 한다(롬6:11-12).
  2.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팔려나가서 다른 분의 소유물이 되었다(고전6:19-20). 그러므로 우리는 능동적으로 우리의 새 주인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전6:20).
  3.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엡4:32). 그러므로 용서해야 한다(엡4:32).
- 나를 얽어매는 죄들을 내가 싸워서 정복하려 할 때 가장 결정적인 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들을 제거하셨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눈을 빼버리는 말은 정욕 이상의 다른 것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이 아니다, 현실에서 내가 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남아 있다.

1. 죄를 죽여야 한다. 2. 새 주인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3. 용서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나의 의지와 상관이 있다. 성령님에 의해 승리하는 힘을 부여 받은 나의 의지 이 세 가지 명령들은 다 나를 향한 것들이며 내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1. 내가 성화를 경험하려면 의식적이 되어야 한다.

2. 나를 얽어매는 죄들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나는 이기심, 분노, 자기 연민, 남 탓하는 것, 폭 가라앉는 것 등에 대해서는 의식적이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죄들을 반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바울은 나를 빌2:12-13으로 인도한다. 여기서 나는 두 개의 중요한 사실을 보게 도이었다.

1.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work out your own salvation)는 말이 생산하라, 효과를 내라는 말임을 알게 되었다. 피터 오브라이언의 빌립보서 강해 주석을 보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피눈물 나게 노력하는

것”, 물론 이 말은 잘 듣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리스도의 칭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다. work out.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수동적인 삶을 포기해야 한다. 어떤 죄도 스스로 없어지지 않는다.

나를 쉽게 얹어매는 죄들은 내가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 능동적으로 죽어야 한다.

2. 내가 일로 행위로 드러내야 할 구원은 지옥 불속에서의 완벽한 구출이라는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기심, 분노, 자기 연민 등에서 실제로 나를 구출하는 것임을 나는 다시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면 실제 삶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모든 것을 발견한 효과는 내가 전에 추구하지 않았던 방식 즉 의도성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이런 특정한 죄들에 초점을 맞추어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마치 나의 안목의 정욕을 처리하듯이 8달 뒤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베들레헴 교회와 신학교에서 이것을 말하였고 내가 배운 것을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하였다.

최근 주일 저녁 아늑하고 눈이 내렸다. 나와 아내와 딸은 집에 있었다. 우리는 세 사람이 함께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14살짜리 딸이 식사를 마치고 와서 말하였다. “엄마와 저는 컴퓨터에서 수퍼내니를 보려고 해요.”, 그리고는 나를 빼고 자기들끼리 보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 순간 나의 이기심, 자기 연민, 남 탓하기, 가라앉기 등이 폭발하였다. 그래서 그 순간 나는 의지를 동원해서 이런 죄들에게 “안 돼!” 하고 소리를 질렀다.

물론 내 혼에 대고

그리고는 조용히 위층으로 가서 내가 상처받은 것을 보여 주는 어떤 몸짓 등을 의식적으로 끊어버렸다.

그리고 서재에서도 싸움을 했다. 노력해야 한다!

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들, 십자가의 소중함,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속 유업, 주일 오전 예배의 감격, 예수님의 인내 등을 생각하였다. 그리고는 내 마음 속에 그것들을 주어 담았다. 그리고는 주님의 피 값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도움을 요청하였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분노, 자기 연민을 죽이고, 폭 처진 것을 내려놓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고후5:7).

이렇게 그것들을 죽이기 시작하여 결국 끝을 보았다.

지금 성장하면 미래가 밝다.

이런 처절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속에 이런 죄성의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하곤 한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다음 몇 가지를 감사할 것이다.

1.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내 죄들을 제거해 주신 것
2. 제거된 죄들의 파위를 부수시는 것
3. 많은 경우 성령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나의 의지적 행동을 통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

나는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발견하였다. 그래서 바울에게 감사를 드린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바울은 나를 얹어매는 죄들과 내가 싸우도록 나를 겸손하게 하였고 내 죄들을 진단하고 가르쳐주었고 그것들을 이길 힘을 주었다. 그는 내 목회 사역과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과 번영을 가져다주었다.

결론

1. 누구나 자신을 쉽게 얹어매는 죄가 있다. 못된 성질과 성품이 있다. 파이퍼도, 나도, 사도 바울도(롬7: ), 여러분도, 2.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3. 예수님이 죄들을 다 제거하셨으나 여전히 죄들의 파위가 우리를 지배한다.
4.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능동적으로 죄와 사워 이겨야 한다. 우리의 구원을 일로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패배자, 파이퍼는 64세, 나는 60 더 빨리 하면 할수록 행복한 결혼 생활, 믿음 생활